

동사구 생략구문의 의미기술

- 초점연계사와 전제유발자로서의 AUCH -

이해운(서울대)

1. 서론

언어기호에 대해 내용과 표현 두 측면으로 파악한 소쉬르 이래로 언어학적 연구는 다양한 하위 분야들로 분화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각 분야에 적합한 혹은 각 분야에서 분석할 수 있는 언어 현상들을 경계 지었고, 최근에는 각 하위 분야들 간의 경계지역에 걸쳐 있는 언어 현상들도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 현상에 대한 분석은 그 언어의 모국어 화자가 갖는 직관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직관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분석대상이 여러 하위분야와 관련하는 복잡한 현상일수록, 각 분야에서 나름의 분석 방법들이 제안된다. 이러한 각 분야에 고유한 분석이나 설명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면 다른 분야에서 보여주는 현상들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러 하위분야에서 설명이나 분석을 요구하는 언어현상에 대한 일괄적인 분석 방법은 설명적 타당성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 하위 분야에서 나름대로 타당한 언어분석이나 설명은 유지하고, 이를 종합 혹은 포괄할 수 있는 설명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불변화사 *auch*가 나타나는 동사구 생략구문 VP-Ellipse의 의미기술을 시도하고자 한다. 동사구 생략구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 구문이 보여주는 구조적인 측면, 의미적인 측면에 연구방향을 두고 있으며, 이 구문에 나타나는 불변화사 *auch*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auch*에 대한 의미론, 화용론에서의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auch*의 다양한 기능들이 동사구 생략구문의 의미해석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동사구 생략구문의 일반적 특성들을 살펴보고, 다음 3절에서는 *auch*의 여러 면들을 살펴본다. 구체적으

로 *auch*가 갖는 초점의 의미론적 기능과, 전제의 화용론적 기능을 살펴보고, 이러한 *auch*의 복합적 기능이 동사구 생략구문의 의미해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기반으로 하여 동사구 생략구문의 의미를 담화표상이론 Diskursrepräsentationstheorie(DRT) 내에서 기술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동사구 생략구문

생략구문이란 문장의 일부 구성성분이 특정한 환경 하에서 발화되지 않는 혹은 생략되는 구문이다. 생략되는 요소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생략구문들이 구분되어 왔다(Lee 1999).

- (1) (a) Jemand kam um vier Uhr und [*jemand*] ging um fünf Uhr.
- (b) Karl besorgte das Bier und Otto [*besorgte*] den Wein.
- (c) Hans gab seiner Frau Wein und Otto [*gab*] seinem Sohn [*Wein*].
- (d) Jemand hat angerufen, aber ich weiß nicht, wer [*angerufen hat*].
- (e) Hans hat ein blaues Auto und Priska hat ein rotes [*Auto*].

유형 (a)에서는 주어 명사구가 생략되는 ‘명사구 생략’, 유형 (b)에서는 동사만이 생략되는 ‘공백화 gapping 구문’, 유형 (c)에서는 동사 이외에 다른 논항들이 생략되는 ‘stripping 구문’, 그리고 유형 (d)에서는 의문사만이 남아있는 ‘sluicing 구문’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형 (e)에서는 명사만의 생략을 보여주는 ‘N 생략’에 해당한다.

동사구 생략구문은 VP 범주의 생략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두 문장 쌍으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 혹은 텍스트에서 동사구 생략구문이 나타날 경우, 두 번째 문장(생략문)은 동사구가 생략되어 나타나고, 첫 번째 문장(선행문)은 생략된 동사구의 선행어에 해당하는 동사구를 포함한다. 다음은 독일어의 전형적인 동사구 생략구문을 보여준다.

(2) Peter liebt Spinat, und Maria auch [vp liebt Spinat].

위와 같은 전형적인 독일어의 동사구 생략구문은 예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사구 선행어를 받는 대용어 *es*가 출현하거나, 조동사가 출현하거나, 혹은 대용어와 조동사가 함께 나타나는 여러 변이형태들로 실현되기도 한다.

(3) (a) weil Leon die Aufgabe lösen kann, und Peter es auch kann.

(b) *Jan hat die Aufgabe gelöst, aber Peter hat es nicht.

(c) A: Hat Peter seine Frau angelogen?

B: Nein, aber Hans hat.

대용어 *es*의 출현은 화법조동사를 동반하며 (3a), 완료조동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용어 *es*를 허용하지 않는다 (3bc). 전형적인 동사구 생략구문은 대용어 *es*가 나타나지 않는, 즉 [주어 + (조동사)] 구문을 일반적으로 말한다. 그리고 조동사의 존재여부는 언어마다 상이하다. 독일어의 경우, 예문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나지 않거나, 예문 (3c)에서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에서는 조동사의 존재가 필수적인 반면에, 스페인어에서는 조동사가 나타나지 않는다(López & Winkler 2000).

(4) (a) Peter visits Mary, and Bill does too.

(b) A: Did John leave?

B: Yes, he did.

(5) (a) Susana leyó Guerra y Paz pero María no.

Susana read War and Peace but Mary not

(b) María no leyó Guerra y Paz pero Susana sí

Mary not read War and Peace but Susana yes

본 논문에서는 등위접속문 형태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동사구 생략구문 (2)을 중심으로 하여, 이 구문에 나타나는 *auch*의 기능을 논의하기로 한다.

3. AUCH

3.1. 개관

동사구 생략구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생략문의 복원 내지는 해석에 중점을 두었고, 생략문에 나타나는 불변화사 *auch*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두었다. 그러나 불변화사 *auch*가 갖는 다양한 기능이나 의미를 고려하면, 기존의 정태적 분석에 문맥의 의미를 추가한 보다 풍부한 의미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

불변화사 *auch*는 ‘등급불변화사 Gradpartikeln’ 혹은 ‘초점불변화사 Fokuspartikeln’으로, 그리고 ‘어조불변화사 Abtönungspartikeln’으로 그 기능이 세분화된다(곽병휴 1997).

- (6) (a) Peter ist auch fleißig.
 (b) Auch der Klügste kann sich irren.
 (c) Er gab mir auch nicht ein Pfennig
 (d) Wer auch immer kam, wir haben uns gefreut.
 (e) A: Das Essen war ausgezeichnet.
 B: Es war auch die teuerste Speise, die es in diesem Hotel gibt.

등급불변화사로서 *auch*는 동류 제시이거나(a), 극단 제시(b), 극단 부정표시(c), 양보 내지는 용인(d) 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이와 반면에 뉘앙스불변화로서 *auch*는 제시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입장을 표명한다(e).

동사구 생략구문에 나타나는 불변화사 *auch*의 경우, 동류제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등급불변화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auch*는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요소와 함께 나타나며, 두 요소들 중 선행하는 요소가 악센트를 부여받아 대조성을 보여준다(Reis & Rosengren 1997).

- (7) (a) Peter wird auch Maria besuchen.
 (b) Peter wird **Maria** auch besuchen.

영어의 경우, 동사구 생략구문에 나타나는 부사 *too*도 독일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Kaplan 1984).

- (8) (a) Jo sent Helen a note and Mo did so/it/_ too.
 (b) *Jo sent Helen a note and Mo did so/it/_.
- (9) (a) Jo likes syntax and Mo likes syntax too.
 (b) ?Jo likes syntax and Mo likes syntax.

대용어가 나타나는 예문 (8)에서는 부사 *too*의 출현이 필수적이고, 예문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동일한 동사구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임의의 논항이 (대조) 초점 악센트를 부여받으면 부사 *too*의 출현이 선호된다고 한다.

한편, 한국어의 동사구 생략구문에서도 영어 *too*나 독일어 *auch*에 해당하는 특수조사 ‘-도’의 출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략문에서는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특수조사 ‘-도’가 나타나야 한다.

- (10)(a) 존이 빵을 먹어, 그리고 메리도 야.
 (b) *존이 빵을 먹어, 그리고 메리가 야. (Kim 1997)

이와 같이 동사구 생략구문에 나타나는 불변화사 *auch*는 Frege의 합성성 원리에 의거하여 많은 적든 생략문의 의미해석에 그리고 나아가 동사구 생략구문의 의미해석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전형적인 동사구 생략구문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auch*의 의미나 기능을 고려해야만 한다.¹⁾ 다음에는 초점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리고 전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auch*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본다.

1) Kaplan(1984: 514)에서는 *too*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To emphasize the similarity between contrasting constituents.” 그러나 위와 같이 부사 *too*의 기능을 단순히 대조되는 구성성분들 간의 유사성 강조로 보는 것은 그 기능을 단순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2. 초점 연계사

하나의 명제가 문맥 내에서 발화될 때, 우리는 그 명제가 표현하는 정보를 이미 알려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 즉 초점은 문장 상에서 표현되는 방식은 언어마다 상이하다. 영어나 독일어의 경우, 악센트에 의한 음운론적 층위나 특정 단어, 즉 초점 연계사 *focus-sensitive particles*나 구문을 이용한 통사적 층위에서 표현된다. 다음은 다양한 초점 연계사들에 의해 초점정보가 표현되는 예들이다(Reis & Rosengren 1997).

- (11) (a) Peter wird nur Maria besuchen.
 (b) Peter wird auch Maria besuchen.
 (c) Peter wird sogar Maria besuchen.

초점 연계사는 자신의 영향권인 초점영역 내에 존재하는 특정 성분을 초점화하는 기능을 한다. 초점 연계사에 의해 초점성분으로 확인된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초점악센트를 부여받아 음운론적인 두드러짐을 나타낸다.

동사구 생략구문에 등장하는 불변화사 *auch/too*를 초점 연계사로 관찰한 연구로는 Rooth(1992a, 1996, 1999), Bos(1994b)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생략문에서 초점 연계사-초점성분 쌍을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Bos 1994b).

- (12) (a) John criticized the report. Bill_F did, too.
 (b) John criticized the report. Only Bill_F did.

위의 예들에서 보면, 생략문에 나타나는 초점 연계사들은 각기 하나의 초점 성분과 관련된다. 이러한 초점성분은 일반적으로 선행문의 주어와 대조관계를 표현한다. 따라서 선행문의 주어와 생략문의 주어는 대조적 초점을 표현하며,²⁾

2) 이와는 달리 Krifka(1999)에서는 강세를 받는 독일어 *auch*의 연계성분은 문맥에 따라 대조주체를 표현한다고 주장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Bos(1994b), Rooth(1992b, 1996, 1999) 등에 따라 대조초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초점 연계사가 없더라도 악센트나 다른 요소에 의해 대조성이 충분히 표현되면 문법적인 동사구 생략구문을 형성한다(Bos 1994b). 독일어의 경우, 초점불변화사 *auch*에 의해 주어와 초점성분으로 확인되거나, 접속사 *aber*의 사용으로 대조성을 보여준다.

- (13) (a) weil Leon die Aufgabe lösen kann, und Peter auch.
 (b) weil Loen die Aufgabe lösen kann, aber Peter nicht.

다음은 초점성분을 갖는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자. 초점의 의미기술을 위한 다양한 이론들 중에서,³⁾ Rooth(1992a, 1996)의 대체의미론 Alternative Semantik은 문장의 의미를 일반적 의미와 초점의미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에 따라 예문 (2)의 생략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표현된다.

- (2) Peter liebt Spinat, und Maria auch.
 (14) [s [s [Maria_F liebt Spinat] ~C] auch(C)]

위 구조 (14)에서 초점 연계사 *auch*에 의해 초점연산자 ~가 도입되고, 이 연산자의 작용으로 인해 대체 명제들의 집합에 해당하는 변항 C의 존재가 가정된다. 이에 따라 생략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그 문장의 일반적 의미와 초점의미로 구분하여 제시된다.

- (15) (a) $\| \text{Maria}_F \text{ liebt Spinat} \|^0 = \text{lieben}(m,s)$
 (b) $\| \text{Maria}_F \text{ liebt Spinat} \|^f = \{ \text{lieben}(x,s) \mid x \in E \}$,
 where E is the domain of individuals

여기서 초점의미 (15)(b)는 초점성분을 변항으로 대체한 명제들의 집합으로 표현되고, 이 초점의미는 일반의미 (15)(a)를 포함한다. 이러한 초점의미와 일반의미간의 관계는 배경정보 대 초점정보라는 이분적 관계로 파악되기도 하며, 특히 배경정보는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전제개념과 관계한다.

3) Kratzer(1991) 참조.

정리하면, 초점 연계사 *auch*는 생략문에서 주어의 초점성분으로 확인시켜줌으로써, 생략문의 의미를 배경정보와 초점정보로 이분화한다. 또한 초점 연계사 *auch*는 그 어휘적 의미로 인해 배경정보에 해당하는 의미를 초점정보에 추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전제 개념과 관련하여 불변화사 *auch*의 기능을 살펴본다.

3.3. 전제 유발자

전제 유발자로서 *auch*에 대한 논의는 영어의 *too*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졌다. 본 논의에서는 영어의 *too*에 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독일어 *auch*의 전제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제 유발자 *too*에 대한 연구로는 Kripke의 언급 이래로 다수의 연구가 있으며,⁴⁾ 앞에서 살펴본 초점 연계사로서의 *auch/too*에 대한 연구들도 부분적으로는 전제개념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제유발자로서 *too*에 의해 함의되는 전제내용은 표현된 명제이외에 또 다른 명제가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다음 예를 보자(Soames 1989).

- (16) (a) [The foreman]_F was fired too.
(b) Someone else has been fired.

예문 (16)(a)에서 전제 유발자 *too*는 초점성분 *the foreman*과 연계되고, 이 초점성분 이외의 다른 개체에 의해 술어가 만족되는 또 다른 명제 (16)(b)가 성립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내용을 Rooth(1999)에서는 다음 예를 가지고서 설명한다.

- (17) (a) Mary also took [John]_F to the movies.
(b) *It's also [John]_F that Mary took to the movies.

4) 예를 들어, Soames(1989), Sæbø(1993), Bos(1994a), van der Sandt & Geurts(2001), Zeevat(2002) 등을 들 수 있다.

예문 (17)(a)는 전제 유발자 *also*에 의해 ‘메리가 극장에 데려간 사람은 존 이외에 또 있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지만, 예문 (18)(b)의 분열문에서는 이런 전제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분열문은 구조적으로 ‘메리가 극장에 데려간 사람은 존이 전부이다’라는 완전성을 전제하고 있어 전제 유발자 *also*에 의해 전제되는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전제 유발자로서 *too*는 다른 전제 유발자들과는 다른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ames 1989, Sæbø 1993, Zeevat 2002). 즉, *too*에 의한 전제 내용은 일반적인 전제에 적용될 수 있는 적응 *Akkomodation*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고, 문맥 내에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언급됨으로써 충족된다고 본다.⁵⁾ 예를 들어, 예문 (19)(a)가 ‘존 이외 다른 사람이 뉴욕에서 저녁식사를 한다’의 전제 내용을 수반한다면,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19)(b)와 같은 명제가 선행 문맥 내에 존재해야 한다.

(19) (a) John is having dinner in New York too.

(b) Harry may well stay in New York for dinner. (Zeevat 2002)

다음은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동사구 생략구문에서 전제 유발자 *auch*를 살펴보도록 하자. 생략문에 나타나는 전제 유발자 *auch*는 생략문의 주어 이외에 누군가 술어를 만족시킨다는 명제를 전제한다. 이 전제내용은 선행문에서 표현된 명제에 의해 충족되어, 앞서 살펴본 전제 유발자 *auch/too*의 속성을 반영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auch*의 전제내용을 초점의미와 관련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제로 인정하는 내용에는 초점 연계사로서의 *auch* 의미와, 전제 유발자로서의 *auch* 기능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문 (2)을 가지고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 Peter liebt Spinat, und Maria auch.

5) Zeevat(2002)에서는 이외에도 필수적인 출현, 의미적 내용의 부재, 전제내용에 해당 하는 선행표현의 담화 내 존재 등을 첨사 *too*, *indeed* 등의 전제 유발자의 특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위 예문에서 생략문에 나타나는 전제유발자 *auch*는 ‘마리아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시금치를 좋아한다’라는 명제를 전제한다. 한편 앞에서 논의한 초점 연계사로서의 *auch*는 ‘어떤 사람이 시금치를 좋아한다’ 명제들의 집합이라는 초점의미를 산출해 낸다. 이를 술어논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0) (a) \quad \exists x [\text{lieben}(x, s) \ \& \ x \neq m]$$

$$(b) \quad \{ \text{lieben}(x, s) \mid x \in E \} \quad (= (15) b)$$

전제내용 (a)와 초점의미 (b)를 비교하여 보면, 초점의미 ‘누군가 시금치를 좋아한다’ 명제의 집합은 전제내용의 일부 ‘시금치를 좋아하는 누군가 있다’를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⁶⁾ 전제와 초점은 각각 화용론과 의미론이라는 상이한 영역에 속한 개념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영역구분, 즉 각 개념들이 포괄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불변화사 *auch*에 의한 전제 내용 (20)(a)에서 초점의미 (b)가 함의하는 부분 ‘*lieben(x, s)*’을 일반화하여 초점의미로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uch*의 전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1) \quad \exists x [\phi(x) \ \wedge \ x \neq a]$$

초점성분을 *a*라고 한다면, 전제는 *a*가 아닌 어떤 *x*가 존재하며, 이 *x*는 임의의 술어 ϕ 를 만족시킨다. 이때 술어 ϕ 는 초점의미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auch*의 전제내용 가정은 Kripke가 제시한 다음 예문 (22)(a)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22) (a) \quad \text{If Herb comes to the party, the boss comes, too.}$$

$$(b) \quad \text{Herb is not the boss.}$$

Kripke에 따르면,⁷⁾ 예문 (22)(a)의 전제는 문장 (b)의 표현으로 본다. 수정된

6) Rooth(1996)는 이러한 함의관계의 설정에 부정적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Geurts & van der Sandt(1997)에 따라 함의관계를 지닌다고 본다.

전제 (22)에 따라 *too*에 의한 전제내용은 $\exists x x \neq \text{the_boss}$ 이고, 변항 *x*는 *Herb*에 대용어결속되어 결국 (22)(b)를 전제하게 된다.⁸⁾ 사실 *auch*의 전제내용을 (20)(a)와 같이 가정해 온 것은 *auch*가 초점 연계사인 동시에 전제 유발자로서 작용하여 그 영역구분이 불명확한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4. 담화표상이론에서의 분석

4.1. 담화표상이론

담화표상이론은 Kamp(1981)에서 제시된 이래로 현재까지 발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역동의미론 *Dynamische Semantik*의 하나이다(Kamp & Reyle 1993, Kamp et al. 2003). 담화표상이론에서 의미해석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먼저 입력문장을 일종의 의미구조인 담화표상구조 *Diskursrepräsentationsstruktur(DRS)*로 표현하고, 다음 이 의미구조를 모형이론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의미해석 과정은 새로운 문장의 의미구조가 기존에 완성된 의미구조에 통합되고, 그림으로써 전체 담화의 의미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담화표상구조는 담화지시체들의 집합 *U*와, 이 지시체들에 대한 조건들의 집합 *Con*의 쌍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예를 들어, 예문 (23)(a)에 대한 담화표상구조는 (b)와 같이 박스형태로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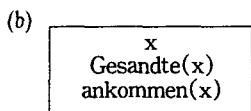
(23) (a) Eine Gesandte kam an.

7) Soames(1989)에서 재인용.

8) 이러한 전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van der Sandt & Geurts(2001)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제내용을 양분한다.

$$[x, y: \text{Herb}(x), \text{boss}(y), [: \text{comes}(x)] \Rightarrow [: \text{comes}(y), \sigma [: \text{comes}(z), \sigma [z: z \neq y]]]]]]$$

즉, 전제부분은 'comes(z) & z≠y'로 표현된다. 후반부 $z \neq y$ 는 최상위의 DRS 층위에 적용되고, 전반부 comes(z)는 조건문에 의해 대용어적 결속으로 만족되어 Kripke의 관찰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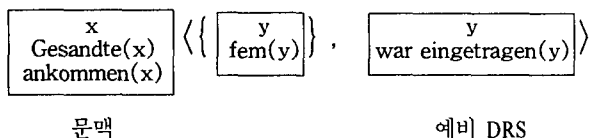


비한정 명사구 *eine Gesandte*는 담화지시체 x 를 집합 U 에, 그리고 이 지시체와 관련된 조건 $Gesandte(x)$ 을 Con 에 첨가하여 주고, 동사구 *ankam*은 조건 $ankommen(x)$ 을 Con 에 첨가하여 위 (23)(b)와 같은 DRS을 얻게 된다. 이러한 DRS는 술어논리식 ‘ $\exists x (GESANDTE(x) \wedge ANKOMMEN(x))$ ’에 상응한 표현으로서 가정된 모형 내에서 해석을 받는다. 즉, 두 조건들 $Gesandte(x)$ 와 $ankommen(x)$ 를 만족시키는 담화지시체 x 를 모형 내의 지시체 세계로 사상시키는 함수가 존재할 때 참이 된다.

다음은 두 문장 이상으로 구성된 담화를 표현하는 DRS를 Kamp(2001)과 Kamp et al.(2003)에 따라 간단히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DRS의 구성이 이전 이론들(Kamp 1981, Kamp & Reyle 1993)과는 달리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먼저 ‘예비 preliminary DRS’에서는 각 문장이 지니는 전제, 초점 등의 문맥적 정보들이 함께 표현된다. 전제정보를 갖는 예비 DRS는 문장의 전제정보들의 집합 P 와 그외 정보들의 집합 D 로 구성된 $\langle P, D \rangle$ 형태를 갖는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예비 DRS의 문맥적 정보들이 문맥에 비추어 검토되고, 상황에 따라 최종 DRS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문 (24)(a)는 예문 (23)(a)를 확장하여 하나의 담화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의 대명사 *Sie*가 문맥 내에 존재하는 여성명사와 대응어적 관계를 갖는다는 전제를 야기한다고 볼 경우, 관련 문맥과 예비 DRS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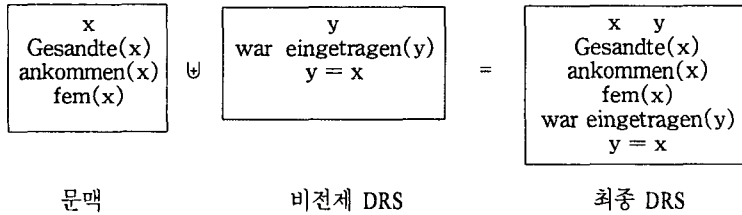
(24) (a) Eine Gesandte kam an. Sie war eingetragen.

(b)



위 (24)(b)에서 보면, 첫 문장의 명사구 *eine Gesandte*는 대명사 *Sie*의 선행어 역할을 한다. 예비 DRS에 표현된 전제는 *fem(y)*가 문맥에 수용됨으로써 해소되고, 또한 이러한 전제해소는 예비 DRS 내에 조건 $y = x$ 의 추가반영을 가져온다. 따라서 최종 DRS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번째 문장의 예비 DRS 중 비전제부분과 갱신된 기존 문맥을 통합함으로써 얻게 된다.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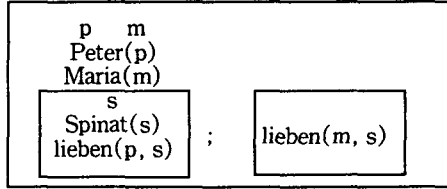
이러한 두 단계 과정을 걸친 DRS 구성은 담화표상이론의 역동적 성격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간 의미기술에 포함되지 않은 전제 등의 문맥적 정보를 반영할 방법을 제공해준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담화표상이론 내에서 앞서 논의한 *auch*의 기능을 고려하여 동사구 생략구문의 의미구조를 표현하기로 한다.

4.2. 분석

담화표상이론 내에서 동사구 생략구문을 다룬 연구로는 Klein(1986), Asher(1993), Bos(1994a, b)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주로 다른 이론들에서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생략된 동사구의 의미복원을 전적으로 조동사에 미루고, 이 조동사에 의해 촉발된 일종의 복사장치에 의하여 생략문의 동사구 의미가 복원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예문 (2)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⁹⁾

9) 등위접속사 *und*에 의한 접속문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DRS로 표현되지만, Kamp et al.(2003)에서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두 문장으로 구성된 담화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를 따라 표현하기로 한다.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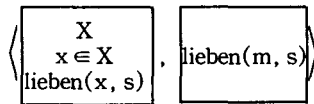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의미표현 (26)에서는 앞서 살펴본 *auch*의 초점연계사로서의 기능이나 전제유발자로서의 기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는 의미구조 (26)를 기초로 하여 *auch*의 다양한 기능이 최종 DRS 구성에 기여하여, 동사구 생략구문의 해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초점 연계사로서 *auch*는 생략문의 주어를 초점성분으로 확인시켜주고, 생략문의 의미를 초점의미와 일반적 의미로 양분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초점의미는 Rooth(1996)의 견해에 따라 임의의 개체가 대용어 술어를 만족시키는 명제들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초점 연계사로서의 기능을 반영한 DRS의 구성은 주제, 초점 등의 개념에 대한 DRS 표현방식을 필요로 한다.

주제, 초점 등의 정보구조에 대한 DRT 내에서의 분석으로는 Bos(1994b), Bende-Farkas et al.(2003) 등을 들 수 있다. Bende-Farkas et al.(2003)에 의하면, 초점정보 F는 예비 DRS 구성단계에서 전제정보처럼 <F, D>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 예비 DRS에서 초점 연계사의 의미가 계산된 후에 최종 DRS로 변환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체 의미론 분석 (15)를 다음과 같이 중간단계의 DRS 내에 표현할 수 있다.¹⁰⁾

(27)



위 구조는 대체 명제들의 집합으로 표현되는 배경정보와 일반명제로 표현

그리고 사건이나 시간 표현은 필요하지 않으면 생략하기로 한다.

10) DRS (27)과는 달리, Bende-Farkas et al.(2003)에서는 초점과 전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제-배경-초점과 같은 삼분 구조를 가정한다.

되는 초점정보라는 이분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초점 표현의 DRS는 초점 연계사의 의미정보와 결합하여 최종 DRS로 전환된다.

초점 연계사 *auch*의 의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초점이외의 요소가 관련 술어를 만족시킨다는 정보를 첨가해주는 일종의 첨가 초점 연계사로 알려져 왔다(Reis & Rosengren 1997). 따라서 DRS (27)은 다음과 같이 담화지시체와 조건들이 융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8) \quad \boxed{\begin{array}{c} X \\ x \in X \\ \text{lieben}(x, s) \\ \text{lieben}(m, s) \end{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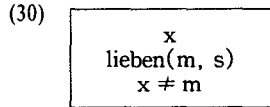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제 유발자로서 *auch*는 그 전제내용이 ‘초점성분 이외의 누군가가 대용어 술어를 만족시킨다’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초점성분 이외의 누군가가 존재하며, 임의의 술어를 만족시킨다’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전제내용을 반영한 예비 DRS는 앞서 살펴본 Kamp et al.(200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9) \quad \left\langle \left\langle \boxed{\begin{array}{c} x \\ C(x) \\ x \neq m \end{array}} \right\rangle, \boxed{\text{lieben}(m, s)} \right\r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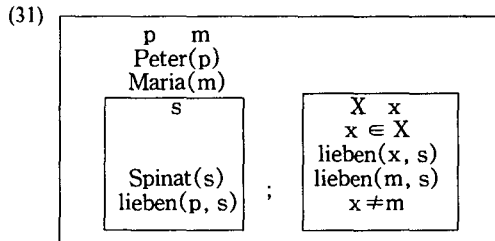
전제내용은 앞선 가정 (21)에 따라 $x \neq m$ 조건을 갖는 담화지시체 x 의 DRS로 표현하고 있다. 문맥에 해당하는 DRS (26)에서 생략문 예비 DRS (29)의 전제 충족을 살펴보면, 담화지시체 x 는 선행문에 나타나는 담화지시체 p 에 의해 대용어-결속되어 전제해소가 이루어진다.¹¹⁾ 조건 $C(x)$ 는 기존 문맥에서 나타나는 조건들 ‘Peter(p)와 ‘lieben(p, s)’에 대응될 수 있지만, 초점의미의 작용으로 인해 조건 ‘lieben(p, s)’에 의해 대용어 결속된다. 그리고 조건 $x \neq m$ 은

11) DRT에서 전제 충족은 일종의 대용어 결속으로 간주한다(van der Sandt 1992, Kamp et al. 2003).

비전제 DRS 내에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변화사 *auch*의 개별적 기능을 중심으로 예비 DRS가 어떻게 구성되고 계산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은 문맥을 표현하는 DRS (26)과, 초점 연계사로서의 기능을 고려한 DRS (28), 그리고 전제 유발자로서의 기능을 고려한 DRS (30)을 통합하여 최종 DR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 DRS (31)는 *auch*의 여러 의미와 기능을 고려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앞서 *auch*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시된 DRS (26)와 비교하여 볼 때 동사구 생략구문 (2)의 여러 면들을 보다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동사구 생략구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생략문에 등장하는 조동사를 중심으로 생략문의 의미해석을 관찰하여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불변화사 *auch*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동사구 생략구문을 살펴보았다. 먼저 초점 연계사로서 *auch*는 초점이론에 따라 생략문의 주어를 초점성분으로 확인하여

주고, 이 초점성분에 의한 초점의미를 문장의미에 첨가해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전제 유발자로서 *auch*는 일반적인 연구와는 달리 생략문의 주어 이외의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보다 단순한 내용을 전제로 취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두 영역에서의 *auch* 기능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담화표상이론 내에서 동사구 생략구문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특히 예비 DRS를 가정하는 최근의 담화표상이론에 따라 *auch*의 두 기능들을 기술함으로써, 각각의 의미나 기능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곽병휴 (1997): 독일어 불변화사 ‘auch’와 한국어 조사 ‘-도’, 『언어』 22, 369-389.
- Asher, N. (1993): *Reference to Abstract Objects in Discourse*, Dordrecht: Kluwer.
- Bende-Farkas, Ágnes, Josef van Genabith & Hans Kamp (2003): DRT: An updated survey, Vienna: ESSLI 2003.
- Bos, Johan (1994a): Presupposition & VP-Ellipsis, CLAUS report Nr. 37, Uni. of Saarland.
- Bos, Johan (1994b): Focusing Particles & Ellipsis Resolution, in: Bosch, P. & R. van der Sandt (eds.), *Focus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Working Paper 7.
- Geurts, Bart & Rob van der Sandt (1997): Presupposition and backgrounds, *Proceedings of the 11th Amsterdam Colloquium*, Univ. of Amsterdam.
- Heim, Irene (1992): Presupposition and the semantics of attitude verbs, *Journal of Semantics* 9, 183-221.
- Kamp, Hans (1981): A theory of truth and semantic representation, in: Groenendijk, J. et al. (eds.),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Amsterdam.
- Kamp, Hans (2001): The Importance of Presupposition. in: Rohrer, Chr., A. Rossdeutscher & H. Kamp (eds.) *Linguistic Form and its Computation*, Stanford: CSLI.
- Kamp, Hans, Josef van Genabith & Uwe Reyle (2003):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ms.

- Kamp, Hans & Uwe Reyle (1993): *From Discourse to Logic* Dordrecht: Kluwer.
- Kaplan, J. (1984): Obligatory too in English., *Language* 60, 510-18.
- Kim, Jeong-Seok (1997): What Syntactic Focus Movement Tells about VP Ellipsis in Korean and Japanese, 『언어』 22(3), 433-452.
- Klein, E. (1986): VP Ellipsis in DR Theory, in: Groenendijk, J. (ed.), *Studies in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Generalized Quantifiers*, Dordrecht: Foris.
- Kratzer, Angelika (1991): The Representation of Focus, in: von Stechow, A. & D. Wunderlich (eds.), *Semantik/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825-834, Berlin: de Gruyter.
- Krifka, Manfred (1999): Additive particles under stress, *Proceedings of SALT 8*. Cornell, CLC Publications, 111-128.
- Lee, Hae-Yun (1999): *Ellipsen in Satzkoordinationen*, Frankfurt a.M. et al.: Peter Lang.
- López, Luis & Susanne Winkler (2000): Focus and Topic in VP-Anaphora Constructions, *Linguistics* 38, 623-664.
- Reis, Marga & Inger Rosengren (1997): A modular approach to the grammar of additive particles: the case of German auch. *Journal of Semantics* 14, 237-309.
- Rooth, Mats (1992a): Ellipsis redundancy and reduction redundancy, in: Berman, S. & A. Hestvik (eds.), *Proceedings of the Stuttgart Ellipsis Workshop*, University of Stuttgart.
- Rooth, Mats (1992b): theory of focus interpreta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75-116.
- Rooth, Mats (1996): Focus, in: Lappin, S.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Oxford: Blackwell, 271-298.
- Rooth, Mats (1999): Association with focus or association with presupposition? in: Bosch, P. & R. van der Sandt (eds.), *Focus: Linguistic, Cognitive,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s*, 232-244.
- Sæbø, Kjell Johan (1993): Anaphoric Presuppositions and Zero Anaphora. in: *Presupposition*. DYANA-2 Deliverable R2.2.A Part II.: ILLC, Amsterdam, 135-192.
- Soames, S. (1989): Presupposition, in: Gabby, D. & F. Guenther (eds.),

- Handbook of Philosophical Logic, Vol. IV: Topic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Dordrecht: Kluwer, 553-616.
- van der Sandt, R.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s anaphora resolution, *Journal of Semantics* 9, 333-377.
- van der Sandt, R. & B. Geurts (2001): Too, in: R. van Rooy (ed.), *Proceedings of the 13th Amsterdam Colloquium*, ILLC.
- Zeevat, Henk (2002): Explaining presupposition triggers, in: K. van Deemter & R. Kibble (eds.), *Information Sharing*, CSLI Publications.

Zusammenfassung

Semantische Beschreibungen von VP-Ellipsen – AUCH als Fokusoperator und Präsuppositionsauslöser –

Lee, Hae-Yun(Seoul National Univ.)

Bei den vorigen Untersuchungen von VP-Ellipsen handelte es sich um Auxiliärverben, die im elliptischen Satz auftreten und auf die Wiederherstellung der elliptischen VP bezogen sind. Im Unterschied dazu, geht es bei der vorliegenden Arbeit um die Partikel *auch*, die in den VP-Ellipsenkonstruktionen auftritt.

Zuerst spielt die Partikel *auch* als ein Fokusoperator eine Rolle, d.h. sie identifiziert das Subjekt des elliptischen zweiten Satzes als eine Fokuskonstituente und addiert die Fokusbedeutung der Fokuskonstituente. Zweitens spielt die Partikel *auch* als ein Präsuppositionsauslöser eine Rolle. Hierbei behauptete ich, dass sie eine einfachere Proposition 'Jemand anders als das Subjekt des elliptischen zweiten Satzes existiert.' als in den vorigen Untersuchungen präsupponiert.

Aufgrund von oben genannten Beobachtungen repräsentierte ich im Rahmen von Diskursrepräsentationstheorie die Bedeutung der VP-Ellipsenkonstruktionen. Insbesondere, indem ich nach Kamp et al. (2003) zweistufige Prozedure von DRS-Konstruktionen annehme, konnte ich einzelne Bedeutungen der Partikel *auch* erfassen und beschreiben.

128 독어학 제9집

[검색어] 동사구 생략구문, 담화표상이론, 초점연계사, 전제유발자
VP-Ellipse, Diskursrepräsentationstheorie, Fokusoperator,
Präsuppositionsauslöser

이해윤

431-78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공작력키아파트 506-1402

haeyun36@hanmail.net